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방안

박성화* · † 김한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sis Response System in the Shipping Industry

Sung-Hwa Park* · † Hanna Kim

*Associate Research Fellow, Maritime Finance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 Senior Researcher, Maritime Finance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요 약 :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운시장 운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에 따른 산업의 장기침체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알게 된 사건이다. 무너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해운산업 위기대응, 조기경보, 스트레스 테스트, 글로벌 경제위기

Abstract : The shipping industry is sensitive to the global economy. Therefore, when events such as the global economic crisis occur, shipping market freight rates react immediately, and the long-term stagnation of the industry has been repeated accordingly. In particular, Hanjin Shipping's bankruptcy is an incident in which the nation has become aware of the chronic problems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The government is making great efforts to rebuild the collapsed shipping industry and become a global leader country. In order for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to grow into a global leader, it is important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crisi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crisis response system for the shipping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Key words : Response to crisis in shipping industry, early warning, stress test, global economic crisis

1. 서 론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운시장 운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에 따른 산업의 장기침체가 반복되어 왔다. (중략)

2. 글로벌 경제위기와 해운산업 대응

실제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그로 인한 1980년대 불황,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 시마다 많은 선사들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을 겪어왔다. (중략) 최근 COVID-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일반적인 경제순환 논리대로 진행되지 않고 금융, 제조업, 소비, 물류 등 복합적인 충격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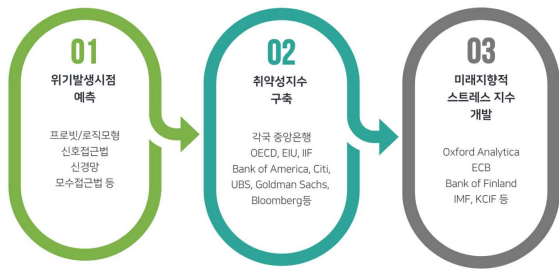
3. 국내외 산업 위기 대응체계 구축 사례

국내외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IMF 직후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정부차원에서 5개 경제부문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운부문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전 해운거래정보센터에서 2014년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각 부문별 시장 조기경보는 대부분 이전의 위기와 유사한 위기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으로 대부분 신호접근법 등 모수접근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전통적인 시장예측 모형은 제한적 시장위기에 대한 예측을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포괄적인 시장 진단 및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중략) 최근에는 시장별 안정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스트레스 테스트 분석을 통한 산업위험 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Figure 1 Early Warning System Development Phase



4.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방안

해운산업 위기 대응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해운시장 경기예측 및 조기경보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기존 시황분석 업무와 더불어 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한 해운시장 예측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정책에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운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의 위기 대상을 확대하고 모형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해운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차원의 부실예측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한진해운의 파산이나 현대상선의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을 경험했듯이 대형 선사의 부실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해양진흥공사는 정부와 협력하여 공사 고객사의 위험관리 외 우리나라 해운기업 전체에 대한 부실예측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변동에 따른 해운시장 및 기업의 위기상황분석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해운시장과 기업 부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예측 업무를 수행하고 예상치 못한 특정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선사 지원 또는 시장 안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해운산업 위기 대응체계 운영방안으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영 중인 해운시장 분석을 해운기업 부실예측과 위기상황분석까지 확대·개편하고 운영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운영과 관리 감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 (중략)

5. 결 론

해운산업 종합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예측 및 조기경보, 해운기업 부실예측, 시장 및 기업부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운시장 위험과 기업 부실을 조

기에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의 방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내 해운기업이 투자와 사업 확장 또는 축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공사의 해운기업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참 고 문 헌

[1] 박성화·권장한·류희영·김한나(2021), 『글로벌 경제위기와 해운산업 대응체계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권장한·박성화·장정인·정수빈·박동욱·김성은(2021), 『해양수산업 경기진단체계 기초연구-해운업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박성화·김태일·권장한(2020),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우리나라 해운·조선기업의 안정성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김태일·박성화(2017), 『재무정보를 활용한 해운기업의 부실예측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